



정연호

외환은행 영업부 WMC PB팀장

1.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선 직장인들이 하루 아침에 퇴출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명퇴’ 라는 말로 미화되어 수많은 직장인들을 거리로, 산으로 내몰 즈음, ‘사오정’ (45세 정년), ‘오륙도’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놈)라는 신조어들이 유행하더니 급기야 ‘이태백’ (20대의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까지 나와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힘들었던 우리 사회를 대변해 주면서 직장인들의 눈물과 애환을 달래 주었다.

한편 최근에는 정년보장이 가장 큰 매력이었던 공무원들마저 언론에 ‘공무원 퇴출’ 기사로 자주 등장하면서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공직사회의 단면을 보는 계기가 되었고 공무원들 스스로에게는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보면서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무원에게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퇴출이라는 단어가 일반 직장인들의 퇴출→명퇴 순서와 달리 명퇴→퇴출의 순서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옛날과 달리 급격히 변한 것은 직장인이나 공무원의 풍속도 만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직장인들의 현실과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테크 시장에서도 퇴출되는 것이 있으니 그 퇴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투자’에게 등 떠밀려 저만치 멀어지고 있는 ‘저축’이다.

지난 호에서 필자는 재테크에 앞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재무설계는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벌어들인 돈과 쓸 돈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재정 플랜을 짜서 그 결과를 평가, 조정하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부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다.

이번 호에서는 앞서 살펴 본 재테크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올바른 투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저금리와 고령화의 동시진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시대로 앞으로 두자리 수 금리시대는 기대하기 어렵기에 재테크시장에서 저축이 퇴출되고 있는 것이다.

2. 「저축」과 「투자」의 개념

많은 투자자들이 정확한 이해 없이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는 저축과 투자의 개념 부터 정리해 보면, 사전(辭典)에 저축(Saving)은 「아껴서 모으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 투자(Investment)는 「자금을 투하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저축은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기는 해도 원금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지만 반대로 투자는 기대했던 대로 되면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원금이 깨지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써야 할 자금이거나,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자금이라면 수익을 생각하지 말고 저축을 해야 한다.

만약에, 단기간 내에 써야 할 자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자금을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수 있으며, 9·11테러사태나 이라크전쟁 발발 등과 같이 갑작스러운 시황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런 국면을 참고 견딜 각오가 되어 있는 자금이라면 투자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제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재무설계를 통해 저축과 투자할 금액으로 구분하고 나서 저축은 가까운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간단하다.

하지만 투자는 투자에 앞서 본인의 투자성향, 즉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투자기간은 단기, 중기, 장기 중 어디로 하며 직접 주식을 살 것인지, 펀드에 가입하여 간접투자를 할 것인지도 결정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주식거래를 직접 하기란 여러 가지 여건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테크에 몰두하다가 자칫 퇴출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펀드투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3. 재테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최근의 국내주식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 역시 상승추세에 있어 국내외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이 정도 이익수준에서 환매를 해서 이익을 실현시켜야 하는가로 고민하고, 또 일부는 고민하다가 환매를 했더니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하여 속상하고, 조정장세를 이용하여 펀드에 가입하려고 시기를 기다리며 속 태우는 등 제 각각의 모양으로 고민하느라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이처럼 늘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나쇼크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때 처럼 증시가 급락했다가 언제나 싶게 반등하는 양상이 반복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를 부자들은 오히려 투자의 적기로 삼아 과감하게 펀드에 신규 가입을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부자들의 남다른 투자 관점이다.

부자가 아닌 보통의 투자자들은 도통 종잡기가 힘든 시장이라는 푸념들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시황에 좌불안석하고 일희일비하는 투자자들에게 단기적 변동은 매우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자산 증식 측면에서는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는 조언을 최고의 주식투자 전략 권위자로 꼽히는 미국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하고 있는데, 재테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적절한 조언인 것 같다.

4. 경제와 경기의 차이

국내외 주식시장과 연계된 펀드에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주가와 주변 현실과의 괴리에 있다. 즉 주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잘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설마 하는 사이에 주가가 20~30% 상승하기도 하고, 이후에도 조정장세를 예상하고 지켜 보지만 주가는 오히려 급등세를 나타내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 때 보통 사람들은 “주변 상가 어딜 가도 장사 잘 된다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주식 시장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하는 생각을 주로 한다.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현실 상황과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주식시장을 매우 투기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장기 호황기에도 자산을 불릴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자들과 일반인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각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일반인들이 투자를 감정적으로 보는 것은 대개 경제와 경기에 대한 개념을 혼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은 경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부자는 투자에 직면해서 감정을 배제한다고 한다. 사실 신문이나 방송을 접하다 보면 대량실업, 파업 등과 같이 부정적인 소식들에 훨씬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가 정말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연스레 그런 생각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도록 하고, 신문이나 방송의 계속되는 부정적인 소식에 일반인들의 미래관과 경제관도 보다 부정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경제는 이렇게 꼬여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주식시장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으니, 혹은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시장이 왜 역사적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분석하기 보다는 시장이 말도 되지 않게 올라가고 있다는 반감을 먼저 갖는 바람에 잘 투자하면 가장 효과적인 자산불리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막상 투자하려면 투기장에 들어가는 것 같아 이리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를 금융관점에서 보면 우리경제에 금융자본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저량貯量적(stock) 개념이고 반면, 경기는 돈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 하는 유량流量적(flow) 개념이다.

그래서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경제가 좋으면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의 포인트이다.

부자는 대한민국 경제를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데 산업구조가 화학, 철강, 전기전자 등에 집중되어 있어 선진국에 비해 다양성 면에서 취약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외충격에 취약한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경제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질적인 면에서 경기불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반인들이 경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상황일 뿐이지 대한민국이라는 상품 자체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주변의 경기가 좋지 않다고 막연히 주식시장이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은 자산관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장기 투자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바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임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주식시장을 감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IMF이전, 주식투자나 펀드 가입을 통해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주식 시장에 절대 관심을 두지 않고 과거의 나쁜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식시장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감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변화하는 투자의 트렌드를 쫓아 가지 못하고, 결국 그 덕분에 최근 수년 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형 펀드를 통해 확정금리형 상품인 정기예금만 하고 있는 자신보다 몇 배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마냥 부러워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마음을 바꿔 적절한 규모의 금융자산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가장 효과적인 자산 불리기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효과로 인해 수익 대비 절세도 가능하다.

6. 펀드투자 실전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해외펀드 잘 고르는 법을 알아보자.

펀드투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점검사항은 투자할 금액의 규모와 자금의 성격,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고 투자자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투자성향에 따라 주식형과 채권형의 투자비율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성향분석은 은행에서 간단한 설문지작성이나 은행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산관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손쉽게 체크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할 것인지 해외펀드에 투자할 것인지를 선택한 후 어떤 운용회사를 선택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동안의 검증된 운용성과를 가진 운용회사이라야 펀드의 규모나 운용조직 등이 안정적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따라서 변동성이 낮으며 시황을 정확히 분석 내지 예측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은 운용회사 대비 운용성과도 좋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 다양한 상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넓은 장점이 있다.

7. 시장동향에 대한 점검은 필수

시장동향에 대한 점검은 필수인데 글로벌 시장전망을 통한 투자대상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해외투자가 유망하다는 판단이 서면 세계시장 중에서 보다 유망한 지역을 선정한다. 예컨대 중남미, 동유럽, 이머징마켓, 아시아, 서유럽, 북중미 등으로 지역을 구분한 후 과거의 수익률추이가 평균보다 높고 향후 전망이 좋은 곳에 비중을 확대하고 최근의 상승폭이 컸던 지역은 이익을 실현한다.

8.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위험 분산

해외주식펀드는 개별시장동향과 방향성에 올인하는 것 보다는 글로벌, 서유럽, 미국, 일본

등 글로벌 또는 선진시장을 핵심 포트폴리오로 편입하고 브릭스, 아시아, 라틴, 동유럽 등 이머징 시장 일부와 부동산, 에너지, 상품섹터를 첨가하는 묶음으로 선택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여야 한다.

과거 경험상 매년 성과가 우수했던 지역은 순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6개 구간(최근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의 수익률을 점검해서 시장 수익률인 벤치마크(Bench Mark) 대비 4개 기간 전체가 우수한 성과를 낸 상품과 같은 지역에 투자하는 동일 성격(동일 Peer Group)의 펀드들과 비교해서 상위권에 들어있는 펀드를 비교하여 고른다면 수익률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위험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운용성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9. 투자 통화 선택방법도 중요

또 해외펀드투자에 있어서 투자 통화 선택방법도 중요한데 해외펀드 투자목적이 재테크 수단일 때는 펀드수익이 주목적이므로, 펀드 선택에 집중하여야 하며 통화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반면 해외펀드 투자가 통화분산 목적일 때는 미 달러화, 유로 화, 엔화 등 다양한 통화의 펀드에 투자하고 선물환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외에 이민, 유학 등 특정통화에 대한 Needs가 있을 때에는 해당통화로 투자하고 선물환거래는 할 필요가 없다.

10. 선물환체결 여부 선택 기준

약세가 예상되는 통화는 선물환 체결이 유리하다.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환율하락 위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강세가 예상되는 통화는 선물환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데 예상대로 통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환차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는 약세가 예상되는 통화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데 환율 하락 위험은 선물환 거래를 통해 Hedge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환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세통화에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방법이 아니다. 강세통화를 선택하였다면, 선물환거래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통화 강세시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 달러화와 유로화 중 어느 통화로 투자할까?

마지막으로 달러화와 유로화 중 어느 통화로 투자할까를 살펴보면 투자자산이 동일한 펀드이지만, 투자통화가 상이함에 따라 투자통화 즉 베이스 통화가 강세나 약세냐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달라진다. 과거 1년부터 최근 3개월까지 수익률에서, 미 달러화 수익률이 유로화 수익률보다 높은 이유는 유로 화는 강세,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임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유로화로 투자하는 경우, 유로화 강세, 즉 펀드가 투자하는 통화들이 유로화 대비 약세일 경우, 펀드 내에서 환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이고 달러화로 투자하는 경우, 달러화 약세 즉, 펀드가 투자하는 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강세일 경우, 펀드 내에서 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현재 유로화 및 달러화는 약간 고평가된 상태이고, 유로화가 달러화보다 더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유로화 강세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의견으로 풀이되므로 투자통화를 결정할 때,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향후 약세가 전망되는 통화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

